12가지 불교 상징으로 만나는 '마음'



불교 행운 상징 컬러링북
박혜원 지음
담앤북스
1만3800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올해 본지의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 1면을 장식한 아기부처님과 천진불을 그린 박혜원 작가가 〈불교 행운 상징 컬러링북〉을 펴냈다. 연꽃, 보리수, 법륜 등 불교의 열두 가지 상징물을 컬러링 도안으로 담은 책이다.

박혜원 작가는 미국에서 산업디자인과 순수미술을 전공한 재원이다. 대학 졸업 후 뉴욕에서 작업을 이어가던 박 작가는 불법 상아 채취로 고통받는 코끼리에 대한 사연을 듣고, 관련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굿즈를 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가치 있는 창작'을 모색해 왔다. 귀국 후에는 두 아이의 엄마로, 서울 조계사 선림원에서 마음공부를 하는 불자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색을 칠하며 나눈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은 '컬러링'이란 방식으로 감성과 명상을 전하는 작업의 마중물이 됐다.

한 달에 하나씩, 일 년에 걸쳐 천천히 채색해 나가는 여정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12가지 도안에 담았다.

박 작가는 "사찰에서는 단청과 처마, 불상과 탑, 연꽃과 같은 아름다운 선(線)을 만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선이 주는 편안함을 전달할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다 '컬러링'을 떠올렸다"고 말한다.

각 도안에는 불교문화와 상징물에 대한 짧은 설명을 덧붙여, 색칠하는 동안 자연스레 불교와 상징물의 의미를 새길 수 있게 했다.

美서 미술 전공…'가치 있는 창작'
불교 '선(線)' 편안함 담은 컬러링
"채색 위한 멈춤이 고요함 되길"

1월의 보리수 도안에는 "음력 12월 8일 성도절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은 날입니다. 보리수는 불교에서 깨달음과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라는 설명이 담겼다.

1월 해오름달, 2월 시샘달, 3월 물오름달, 4월 잎새달, 5월 푸른달, 6월 누리달, 7월 견우직녀달, 8월 타오름달, 9월 열매달, 10월 하늘연달, 11월 미티달, 12월 눈마중달로 계절의 특징을 반영한 이름도 흥미롭다.



박혜원 작가가 그린 올해 본지 부처님오신날 봉축특집호 1면 표지 그림.

채색은 색연필이나 수채화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 절취선이 있어 한 장씩 뜯어 선물하거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뒷면에는 소망과 발원을 적을 수 있다.

박혜원 작가는 "어떤 색을 칠할지 고민하는 그 잠깐의 순간이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바쁘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도 책을 펼치는 순간만큼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내 안의 고요함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불교 행운 상징 컬러링북〉의 12가지 도안. 그림 제공=담앤북스

독송·기도 위한 〈약사경〉 해설서



약사유리광 여래본원공덕경
상욱 · 현안 옮김
위앙북스 / 1만2000원

"이러한 유정들은 모두 지옥, 축생, 아귀의 길에서 끝없이 윤회하게 되는 것이다. 그들도 이 약사유리광여래의 명호를 듣게 된다면, 즉시 악행을 버리고 모든 선한 법을 닦아서, 악한 길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46p 중에서

미국 영화 선사의 한국인 제자들이 설립한 위앙북스가 펴낸 첫 책이다.

당나라 현장 법사가 번역한 〈약사유리광여래본원공덕경〉을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을 덧붙였다. 위앙종 미국 도량에서 수행 중인 상욱 스님과 선명상 지도자 현안 스님이 번역을, 무경 스님(송광사 교무국장)과 대지 스님(청주 보산사)이 감수를 맡았다.

〈약사경〉은 병고와 재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중생을 위해 약사여래가 세운 열두 가지 본원(本願)과 그 가르침을 수호하는 12야차대장의 발원을 담은 경전이다. 책에서는 젊은 세대와 초심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현대어를 사용해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 용어와 문맥을 자세히 밝혔다. 또 한문과 음독 표기, 우리말 번역을 함께 실어 이해를 높이고 기도와 수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앙종 · 조계종 스님 함께 번역
"약사불 의지해 바른 수행의 길로"

공동 번역자 상욱 스님은 "새로 출간되는 〈약사경〉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약사부처님을 접하고, 약사 불법으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그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함으로써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현안 스님은 "누구든 진정으로 약사부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문제나 장애도 극복할 수 있고, 결국 바른 수행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앙북스는 앞으로 영화 선사의 선명상 지침서와 정토 법문, 대승경전 강설집 등을 출간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젠더 정체성' 집착서 벗어나려면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
리타 그로스 지음
김민정 옮김
운주사 / 2만원

"불교도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가?" "페미니스트는 불교도가 될 수 있는가?"

'불교 페미니스트'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리타 그로스(Rita M. Gross, 1943~2015)의 유작 〈젠더를 넘어서는 불교〉가 우리말로 번역 출간됐다.

리타 그로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 20대에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힌두교를 거쳐 30대에 불교와 명상에 매료됐다. 1993년 〈가부장제 이후의 불교〉를 출간한 후 '외부 분석가에서 내부 비평가이자 옹호자로 변신'한 그는 위스콘신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로 일하며 '불교 페미니즘' 연구를 개척했다.

이 책은 리타 그로스의 말년 유작으로, 페미니스트 학자이자 불자로서의 생각과 사상이 농축되어 있다. 전작들에서 붓다의 '해방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여성 불자들이 지도력과 권위,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그는, 이 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들이 '젠더 역할'이라는 감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교 페미니스트' 리타 그로스 유작
"젠더가 무아(無我)임을 성찰해야"

그는 "젠더 역할에 끄달리는 것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다"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의 핵심은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젠더가 무아(無我)임을 성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번역을 맡은 김민정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리타 그로스는 여성성이나 남성성이 관습적으로 형성되고 고착된 자아라는 점을 간파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무아를 깨닫는 불교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책의 요지를 설명했다.

리타 그로스가 미처 완성하지 못한 원고 속 트랜스젠더 문제와 타라보살에 관한 내용은 후속 연구자들을 위한 과제로 남겨졌다.

여수령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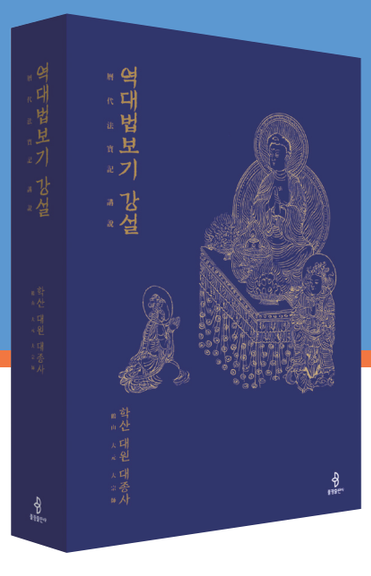
역대 조사들이 보인 불퇴전不退轉의 구법求法과 전법傳法의 여정!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曆代法寶記 講說 역대법보기 강설

한국불교의 큰 스승, 학산 대원 대종사가 전하는
전등의 역사와 역대 조사들의 가르침!

《역대법보기》는 혜능 이후, 남악-마조 계통과는 독자적인 법맥을 보여줌으로써 선맥의 다양성과 깊이를 조명한 초기 선종의 중요 문헌이다. 특히 무상無相 · 무주無住 선사가 주창한 삼구어三句語의 가르침은 대승大乘의 요의了義를 밝히는 지침이자, 돈오頓悟 선법의 정수로 일컬어진다. 이 책은 그 가르침과 부처님부터 역대 조사로 이어진 정법의 원류를, 이 시대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의 계승자인 학산 대원 대종사의 법음法音으로 전하는 귀한 가르침이다.



학산 대원 대종사 강설 | 656쪽 | 양장본 | 60,000원

학산 대원 대종사
鶴山 大元 大宗師

1956년 출가하여 오로지 구도의 길만을 걸어 온 우리 불교 대표 선승.
1986년 계룡산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울 때까지 제방의 선원을 돌며 효봉, 동산, 고암, 경봉, 전강, 향곡, 성철, 구산, 월산 스님 등 여러 선지식들 회상에서 정진했다. 현 해인총림 10대 방장인 스님은 지금도 후학들과 나란히 앉아 용맹정진해 오고 있으며, 간화선 수행 가풍의 진작과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하고 있다.

